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교구 7개팀, 청년1부 12개팀, 대학부 7개팀 등 농어촌에 총 26개 전도대 파송

춘천소년원 등 특수지역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교회는 하절기를 맞으며 농어촌 지역의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서 주관하고 지원하여 실시되는 농어촌 전도 활동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이른 6월 16일부터 시작되어 8월 15일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금년에 이처럼 빨리 시작된 것은 각 교구에서 실시하는 농어촌 전도 활동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구 식구들이 한 팀이 되어 농어촌 사정에 맞추어 나가기 때문이었다.

농어촌 전도 활동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해왔는데,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특수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펴서 그들을 도와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각 교구에서 지원하는 교회에 교구에서 구성한 팀과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전도팀을 파송한다.

주요 활동은 전도활동으로 낮에는 축호전도, 밤에는 부흥집회를 실시하여 낮 동안 전도한 사람을 저녁에 초대하여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한다. 흔히 많이 하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나 주교 보조활동도 전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2, 3년 전부터는 대학부와 청년1부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낙도와 내륙 오지에서 축호전도를 실시해 오고 있어 전도 활동과 전도 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에도 대학부와 청년1부는 낙도

나 내륙 오지에 전도팀을 보낼 계획이다. 이처럼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전도대 파송 및 지원 등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봉사, 전도 활동을 실제적으로 감당해 보는 훈련의 장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거의 모든 도시 교회가 여름 한철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는 일들이 계속됨에 따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이제는 농어촌과 좋은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농어촌 전도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때도 되었다.

이런 면에서 대학부가 전남 고흥 지방의 동일한 지역의 낙도를 매년 방문, 전도하는 일이나 청년1부가 춘천 동면 상걸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 전도, 봉사팀을 파송하는 일 등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교정전도회 중심으로 춘천소년원 수련회를 인도하는 일도 있다. 매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주강사가 되어 실시해 오면서도 교사들은 여러 교회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부터는 교사도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회원들로 구성되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춘천소년원 수련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이다.

금년도 농어촌지역 전도대 파송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지난해 농어촌 전도대의 전도 및 봉사 활동 모습

7월 15일(화) 동서울노회 임시노회에서

김성관 목사 담임목사 청빙 허락

7월 21일 출국 8월 15일 귀국 예정

지난 7월 15일(화) 충현교회당에서 열린 동서울노회 제51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청원한 '김성관 목사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건을 허락함으로써 김성관 목사를 우리 교회의 담임목사로 모시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짓게 되었다.

한편 김성관 목사는 7월 21일(월) 미국으로 출국하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8월 15일 귀국하게 된다.

지난 한달 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김성관 목사는 이제부터 오로지 충현교회에서의 목회에만 전념하게 된다. 지난 한달 동안 외부에서의 수많은 초청을

모두 거절하고 모든 시간의 설교와 교회의 여러 부문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일환으로 부임한 이래 시무장로들과 부교역자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더욱 설교를 위한 준비와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되겠는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더욱 요청된다.

김주경 선교사 사임

김주경 선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이스라엘 선교사직을 사임하였다.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설립 마흔다섯 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께서는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년 6월 22일 ~ 12월 31일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 ~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 ~ 7시 30분
- 찍는 교구 / 1997년 7월 20일 : 5교구
1997년 7월 27일 : 6교구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권사 / 남녀 서리집사

구분	파송처	파송교회	파송처 연락처	기간
2교구	충북 음성군 생곡면 차평1리	양무리교회	0446-877-8736	7. 2 ~ 7. 4
2교구	충남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해성교회	0445-62-7980	7. 28 ~ 7. 31
3교구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리	북쌍교회	0373-72-4506	8. 5 ~ 8. 7
4교구	경북 상주시 화개동	화개교회	0582-32-3152	7. 21 ~ 7. 24
8교구	강원 동해시 이도동	동성교회	0394-522-5283	6. 16 ~ 6. 19
11교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2리	신산교회	0576-862-6013	7. 8 ~ 7. 11
16교구	경북 영천시 천동면 태평리	사일교회	0563-34-6757	6. 24 ~ 6. 27
청년1부	경남 거제군 추봉도	추봉교회	0557-42-8880	7. 28 ~ 7. 31
	경남 거제군 죽도	죽도교회	0557-43-7492	7. 28 ~ 7. 31
	경남 거제군 매물도	매물도교회	0557-42-9879	7. 28 ~ 7. 31
	경남 거제군 소매물도	무교회	0551-43-7903	7. 28 ~ 7. 31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교회	0636-536-1308	7. 28 ~ 7. 31
	경남 통영시 화도	화도교회	0557-43-2347	8. 4 ~ 8. 7
	경남 통영시 곤리도	곤리교회	0557-44-4229	8. 4 ~ 8. 7
	경남 통영시 우도	우도교회	0557-646-9301	8. 4 ~ 8. 7
	경남 통영시 육지도	육지제일교회	0557-42-6135	8. 4 ~ 8. 7
	경남 삼천포읍	무교회	0539-835-2402	8. 4 ~ 8. 7
	강원 춘천시 동면 상걸리	상걸분교	0361-53-7507	8. 12 ~ 8. 15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	신매교회	0361-52-2132	8. 12 ~ 8. 15
대학부	전남 고흥군	연흥교회	0666-843-9038	7. 14 ~ 7. 19
	경기 연천군	전곡충현교회	0355-32-3591	7. 21 ~ 7. 24
	부산 서구	남부민교회	051-242-9361	7. 28 ~ 8. 1
	전북 남원시	성은교회	0671-34-5384	8. 4 ~ 8. 8
	경기 여주군	신망애교회	0337-86-0013	8월 초
	강원 평창군	미산교회	0374-32-3992	8월 초
	충북 음성군	새생명교회	0446-72-6252	8월 초
	인천 용진군	율도교회	032-832-9954	8월 초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심판의 방법

(이사야 3:1-7)

본래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무서운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에게 외치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멸망을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받아서 쓰고 삽니다. 인생이 자면서도 마시는 공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보리밥 한 술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악의 유혹을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은 원망하여 거역하고 마지막에는 죄악과 타협해 버립니다. 즉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는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던 것들을 없애 버리십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없애 버리십니까?

(1) 양식과 음료수를 없애 버리십니다

흉년이 들게 하여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양식을 제해 버리고 또한 가물을 들게 하여 마실 물을 제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금보배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는 맥을 양식과 물이 없어집니다.

(2) 지도층 인사들을 없애 버리십니다

물질을 제하여 버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일할 만한 사람들을 없애 버리십니다. 젊은이들과 재판관, 선지자, 복술사,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가 등은 당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모두 없애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다. 흉년이 들면 배고파서 불쌍해지고, 전쟁이 나면 잘난 사람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양식이 없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모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2. 나라를 혼란하게 하십니다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어지고 일할 만한 지성인들이 모두 없어지면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1) 아이들이 지도하게 됩니다

자적이 없는 자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관이 되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자들'이란 것을 빼는 갓난 아이란 말인데 젖을 먹는 아이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 나라의 행정이 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적자라는 말은 꼭 젖먹이 어린아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키는 크고 힘은 세고 나이는 들어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생각이 아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과 지식이 아이만 못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하니가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방백이 되고 적자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첫째로,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누구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둘째로, 위정자들이 백성을 보호할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치란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도록 지도하고 백성을 보호하여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원수가 쳐들어 와도 백성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셋째로, 위정자들에게 도리가 없고 이치에서 떠나서 모든 일에 억지만 부립니다.

아이가 방백이 되고 적자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니 백성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보호할 실력도 없고, 옳은 판단력이 없으니 자기의 기분에 따라 명령을 하고는 그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쟁쟁해져 주먹을 휘두릅니다.

(2) 대인관계가 깨어집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를 합니다. 서로 굶어내리며 학대하니 사랑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노인들을 천대합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쟁쟁들이 존귀한 자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치품을 모아놓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울면서 회개합시다.

교회도 나라도 사람을 중시하다가 하나님을 잊어 버리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앞에서 세도 부리는 혼란한 때가 올 것입니다. 도무지 인격적으로 상상도 못할 만큼 저급한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자들을 한없이 핍박하는 혼란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는 마침내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뽐을 잡은 사람들이 도적들과 동업을 합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야 할 만큼 세상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받은 후에 벗어날 혼란입니다.

(3) 지혜로운 자는 숨어 버립니다

정치적으로 자격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이 보기 싫다면서 모두 숨어 버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외칠 때에 북방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코웃음을 치다가 앗수르 군대에게 여지없이 망하여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가슴치고 회개하여 이 재앙을 면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신 물질을 바로 써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때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였고 유다도 잘 살 때였습니다.

먹는 양식을 사기 위해 쓰는 돈보다 사치품을 사고 방종하며 못된 것을 하는데 쓰는 돈이 10배, 100배 더 많으니 하나님께서 먹는 식량을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쌀을 10가마, 100가마 쌓아놓고 먹던 자들이 겨우 쌀 한 되를 사먹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먹는 식량을 업신여기고 사치품을

좋아하다가는 하나님이 양식을 제하는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천대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쌀 한 알이라도 헛되이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식을 제하는 재앙을 여러분은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식량을 천대하면서 사치품만 쌓다가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금보다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리쌀 한 알이 비단옷보다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것은 죽고 썩어지는 돈이지만,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여 선행한 데 돈을 써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치품을 모아놓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울면서 회개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지나치게 믿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보다 더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워 버리십니다.

어느 교회에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야 하고,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울려 오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느 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나라도 사람을 중시하다가 하나님을 잊어 버리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고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 To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 김성관 목사의 금주 설교 ●

COMPLETELY CALM

(Matthew 8:23-27)

Each person's life is like a ship sailing the sea. Most people enjoy the ride, especially when the waves are small, the breeze is gentle, and the ship is in top notch condition. When life appears carefree and blissful, their hearts are at peace and life is good. Most people become frightened and unhappy when the waves swell, the wind blows hard and the ship is in disrepair. When life appears worrisome and troubled, their hearts are discontent and life is unpleasant.

This familiar simile is an analogy of a worldly life. A life centered on one's own reasoning (self-centered) not on faith in the Almighty (God-centered). It should not reflect the life of a Christian. Christians have peace during easy and difficult times. They have peace "all" the time because Christ dwells in their hearts, the Holy Spirit is forever there to comfort and guide them, and they know God is always watching over them. A Christian's faith in God surpasses human rationale and solely relies upon Christ.

The disciples followed Jesus onto a boat. They had already experienced Jesus heal the sick, cast out demons, and work many miracles. They knew His power and yet, when they faced the up roaring of the sea, they became afraid. These same disciples were once experienced fishermen and very familiar in handling a boat during stormy times. Unfortunately, they tried to fight nature themselves and lost. They relied upon their own understanding and therefore had no peace. They were afraid of drowning. So they awoke Jesus in their fear and asked Him to save them. Jesus repli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Then Jesus got up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waves and everything was calm.

The disciples were amazed at Jesus' power. They couldn't believe that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ed Him. Although they had previously witnessed Jesus perform many miracles, they asked themselves "what kind of man is this?" With all the evidence that surrounded them, with Christ himself in their presence, they did not fully understand and thus their faith was weak.

The story of Jesus and the disciples crossing the water in a fierce storm is a special message for Christians. It reminds us that Jesus is not only in our boat but He has full control. His power extends even to the most powerful strongholds of evil itself. Just like the disciples, most people are so sensitive to the inside and outside activities of life. They hear the wind, they see the waves, they feel endangerment. The problem is that they don't hear, see or feel Jesus during their times of strife. They are not sensitive to His presence. Their faith is weak.

As Christians, we know that Christ dwells in our hearts and that the Holy Spirit is forever with us. We know that God watches over us and is always there for us. The Bible tells us these things. God said,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Heb. 13:5). With that knowledge, how well do we respond to difficult and unpleasant situations? How strong is our faith?

So many Christians lose their faith during hardships that they think are overpowering. When sickness strikes, when a loved one dies or is injured, when a business fails, when expectations fall by the wayside and life's



아주 잔잔함

(마태복음 8:23-27)

우리 각자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잔잔하며, 순풍 가운데 배가 최적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항해를 즐깁니다. 삶에 아무런 염려가 없고 더없이 행복할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평안하며 삶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파손상태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행하게 여깁니다. 삶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그들의 마음은 불만족스러우며 삶은 불쾌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 삶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스스로의 사고방식에 의거한 삶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경이나 역경이나를 막론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계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

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사건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처럼 물러오는 바다의 파도를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이었으며, 큰 물결이 치는 바다에서 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연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 의거한 이해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중에 예수님을 깨우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고 답변하시며,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책망하셨고 이내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파도까지 주님께 순종했던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물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증거들과 그리스도까지 그들 앞에 모셔 놓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건넌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은 악의 가장 강력한 본거지까지라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가시적인 현상들에 매우 민감하게 내적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바람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파도들을 보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역경의 순간에 처할 때에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또한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유약하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머물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피시며 항상 우리들을 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히 13:5). 그러한 것을 알면서, 우리들은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얼마만큼 잘 대처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강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역경의 때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사랑하는 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을 때, 사업에 실패할 때,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여러 정황들이 유쾌하지 않을 때의 그들의 행위는 제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

circumstances are not pleasant, their actions reflect those of the disciples. They lose the peace, the perfect peace, which is ever present in Christ.

Yes, Christians know the teachings of the Bible but they do not comprehend, fully understand their significance. It's one thing to know something and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to believe in it - to understand it - to practice it - to live it!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Heb. 11:1). It takes faith to be a Christian. It takes faith to have everlasting peace. If our faith is only the size of a mustard seed, we can move mountains! How much faith does it take to give our worries and troubles to God and let Him handle them?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Without faith in Jesus, our Savior, we cannot enter the gates of heaven. Without faith, there is no hope and our hearts cannot feel His love. Without faith, our eyes cannot behold His glory. Without faith life is purposeless, void of any meaning, and forever dead.

To trust in God with all our hearts, to solely rely upon Him in every situation is a principle that we Christians need to practice and apply more frequently to strengthen our faith. We should always turn to Christ and thank Him for everything, including good times and bad times! It's easy to remember Christ during our good times, so let's especially remember during our difficult times to let Him calm the storm. Jesus has the power to "rebuke" all storms and it's in His name that we, too, are given that power. So, next time trouble arises and difficult times approach, pray in Jesus' name to calm the storm! Let your faith reflect His love.

도 안에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그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은 바로 이해하고, 믿는 바를 실천하며, 믿는 바에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히 11:1).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알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삶은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영원히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정황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생활에 실천하며 더욱 자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며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될 때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도록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폭풍을 꾸짖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 능력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역경이 도달하고 어려운 때가 이르게 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풍에게 잔잔하라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My name is Grace Lee. I am the wife of Rev. Paul Lee who is the pastor of English Ministry. I serve as a teacher at the English elementary department. Recently, I substituted a class teaching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My teaching plan for that day was to have students make some fish and animals with colored papers as I

would teach them about God as the Creator. But somehow I had this feeling that it was not what God wanted me to teach. As I was having all the students sit quietly on their chairs, I prayed in my heart saying, "God, what shall I teach them?"

Then, a thought came across my mind. Surely, they responded correctly to the gospel related questions during the earlier assembly meeting. But I really wondered whether their answers were coming from their genuine belief or merely from their head knowledge. So I started asking them, "Where is Jesus in relation to you?" They said, "In our hearts". I asked them again, "How do you know that you can go to heaven?" One child answered, "Believe in Jesus, and don't do bad things but live a good life". Another child said, "Believe in Jesus and try to keep all the commandments". I listened to each child's answer one by one. To my surprise, only one out of fourteen children gave the correct answer. She said,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I started explaining to them, holding up a white sheet of paper. "God knows everything. He knows us so completely that there is nothing that we can hide from Him. He knows not only our actions but also our thoughts." I asked, "Is there anybody who can say to God that he or she is absolutely sinless and clean in his or her thought, heart, speech and actions, just as this white sheet of paper?" Everybody said, "Nobody!!!" I went on, "Right! God says in Rom. 3:23, even those people who seem to do only good things and live a good life also commit sins. In Rom. 3:20, God says that nobody can keep all of His commandments. Instead, we come to realize that we are sinners through God's commandments. We all have broken God's laws and are found to be guilty



Great Joy of Being A Sunday School Teacher

by Grace I. Lee

before God".

After studying a few more passages they seemed to understand that they can be saved only through the blood of Jesus washing their sins, not through good works, or by keeping God's commandments. So I asked them to close their eyes and raise their hands if they were sure that they would go to heaven if they were to die even that night. All of them raised their hands except one boy. This boy used to be in my class last year for a short period of time. He was the one who told me flat on my face, "I don't want Jesus to come into my heart". What he said kept ringing in my ears for some time. I have seen some of the grownups rejecting Jesus Christ like that before but have never seen a little child responding in such a way. His heart was so hardened and tightly closed to Jesus that I just felt helpless and sad!

I had a chance to present the gospel to a group of people last summer at the retreat. At the end of my gospel presentation, several people, from little children to adults, stood up and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personal Savior and Lord. That night, God changed their hearts and destiny once for all. On the following Sunday morning, having come back from the retreat, I presented the gospel once again during the children's assembly meeting for those who did not go to the retreat. Again, some children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Lord. However, this boy still refused to accept Jesus into his life.

However, this same boy who flatly said, "No" to Jesus a year ago, now wanted to receive Jesus Christ!!! God has been changing his heart. I was greatly surprised. I asked him to come forward and stand with me. I held his hands and prayed with him. He invited Jesus into his heart. Then, the whole class prayed once again, thanking God for His wonderful work of

salvation and the new and eternal life we have in Jesus. Then we gave him a big applause. Praise the Lord! Finally, he became a child of God!!!

I want to share this story especially with the Sunday school teachers. Whether we are aware of it or not, especially on Sundays, we are engaged in a great spiritual warfare,

fighting to win souls to Christ. Do you know whether your students are saved or not? Are you leading your students to Christ? We can be so busy doing all kinds of Sunday school activities. But if we do not know our students individually whether they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or not, we cannot earnestly say that we have love for their souls. What is more desperate and absolutely important than bringing life to the dead? Leading each of our students to Christ should be our first priority. It is the greatest and most urgent task which God has given us to do. God is bringing them to us every Sunday and God has given us the greatest opportunity and privilege in the world to lead them individually to Christ.

Let us, therefore, make a specific plan to meet with each student and lead them to Christ one by one. Let us make sure that every one of our students knows Jesus as his or her Savior and Lord. If there are students who are not yet saved, let us start praying for their salvation. With a help and power of Holy Spirit, I believe that we will be able to lead them to Christ if we keep on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with them. We, Sunday School teachers, are the most privileged group of people in the church of Christ because God has entrusted us with His most precious lives in our care. I am very grateful that I am a Sunday School teacher.

English Ministry is looking for Sunday School teachers who can teach the Bible in English.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Rev. Paul Lee at 552-8200(Ext. 356) or 554-9469(Home).



역삼동의 선교사들

이승림

(목사, 선교위원회, 영어에배부 지도)

역삼동에 20여명의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은 바로 선교 위원회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 사역자들입니다. 현재 충현교회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 50여명이며 이들중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약 35명가량 됩니다. 그들은 주일 2부예배에 참석하여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선교 위원회를 통하여 한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중 상당수는 불교, 힌두교, 또는 회교권에서 살다가 왔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생 본국에서만 살게 된다면 그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 들어온 20여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상 오늘날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할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현재 충현교회 선교위원회는 이들에게 한글을 교육하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 그들에 대하여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만일 이들을 언어권별로 따로 모아서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서 따로 모이게 한다면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모든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그들이 한국어를 습득할 때 얻는 엄청난 혜택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 그들은 제2외국어인 한국어를 습득하여 한국어로 출판된 수많은 기독교 출판물들과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중 앞으로 복음사역에 헌신하여 한국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와 선교사들도 배출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근로자 사역은 매우 효율적인 선교사역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보내는 사역자는 거의 예외없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선발하여 선교지에 보내서 그 사람이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는 수년

간의 적응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 기간동안 엄청난 선교비를 후원해야만 합니다. 해외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한다는 것은 웬만한 중간급 규모의 교회의 담임목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재정적 규모와 맞먹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아울러 효율성에 있어서도 외국인으로 대접받는 한국인 선교사가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보장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여 선교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지만 한다면 그들은 언어와 문화에 신경쓰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여만명이 넘는 국내체재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긴급한 선교의 과제입니다. 또한 이 사역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는 바다를 건너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이제 우리는 역삼동의 충현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과 문화와 환경을 모두 떠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접하며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도 전혀 새로운 기독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힘쓰는 역삼동의 선교사들(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은 약 20여명이 됩니다. 그들은 주중에는 아홉군데를 그루트로 정해 놓고 한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새벽에는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을 차량으로 데리고 오고 있으며, 예배후에는 한글 및 성경을 공부시키고, 점심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돕는 손길을 많이 요구하는 사역입니다. 한글 및 성경 교육, 심방, 식사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지만 차량지원이 안되어 못나 오고 있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손길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로 보내 주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시간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오십시오. 이들의 영혼이 귀한 것을 깨닫고 이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은 남뉘소스를 막론하고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선교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련회

7월 31일-8월 2일 남이섬에서 개최됩니다. 이 수련회에서 교사, 식사, 차량으로 봉사하실 동역자를 구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께서는 선교위원회로 문의바랍니다(교환 357번).

6월 26일 새벽 3시. 영천에 있는 사일교회(16교구 농촌 지원교회)의 파송 전도 일정을 60일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던 새벽이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아내 김길득 권사를 깨워 서로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였다. 작은 밀알이라도 버리지 마옵시고 귀히 써달라고 기도하면서 문득 고전 4:14의 말씀이 생각났다.

창 밖에는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농촌에 있는 사일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려는 선물들과 파송전도대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점검하며 차에 싣고 교회로 가니 우리를 태우고 갈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필요한 장비와 물품들을 버스에 다시 옮겨 실은 후 대원들을 만날 장소로 갔다. 파송 전도대원은 모두 23명이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차가 서서히 달려가면서 우리는 이같은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았다. 영천에 있는 사일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바울과 한나전도회의 지원 등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있는 사역이라고 확신케 되었다. 대원들은 정정자 권사님의 찬송 인도로 추풍령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찬송을 드렸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이 대구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비가 더욱 거세져서 앞이 안보일 정도였다. 장대같은 빗줄기와 정체된 고속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은 우리들의 마음을 갑갑하게도 하였지만, 우리는 이 비가 수그러들기를 마음 속으로 다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차가 어느덧 경산인터체인지 근처에 왔을 때 그곳에는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이 서로 사고를 일으켜 그곳에서만

※ 농어촌 전도 활동을 다녀와서 ※

농촌 오지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종성

(집사, 바울전도회 16지회장)

40여분을 지체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 내리던 비는 4시간 만에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오후 3시 50분! 목격적인 사일교회에 도착하였다. 봉고차를 가지고 마중나오신 사일교회 김이구 목사님은 충현교회 차를 알아보시고는 아멘! 아멘!을 연발하셨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사일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현관 앞에서 빗속에 뿔뿔히 젖어가는 진흙바닥과 교회 지붕 위에 세워진 초라한 십자가 등을 보면서 가슴이 저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성소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제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서니 그 안에는 24일부터 미리 오셔서 의료전도를 하시던 김경철 장로님과 세 명의 '의료전도팀'이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도착예배를 드렸다. 도착예배는 행 1:20을 중심으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제목 하에 김이구 목사



님의 말씀이 있었다. 김경철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는 '파송된 전도대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사일교회에 부흥의 은총이 있기를', 그리고 '농촌

오지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어서 속히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예배 후 우리는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준비를 하였다. 이어서 저녁 식사가 마칠 때쯤에는 한근수 목사님이 막 도착하셨다.

저녁예배시에는 사일교회 성도와 마을 사람, 파송대원, 의료봉사단 등 57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가득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흐뭇하였다. 한근수 목사님은 요 14:12-14를 본문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우리는 함께 사일교회의 부흥과 김이구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농촌 성도와 믿지 않는 마을 부락민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후 파송된 우리들과 사일교회 성

도와 마을 사람 12명(새로 초청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천교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의 일정을 마치니 밤 10시 30분.

다음 날 새벽 5시! 잠자리에서 깨어서 개별 새벽기도 후 우리 전도단은 '예수 사랑' 어깨띠를 두르고 노방전도를 나섰다. 그 지역의 주소득원은 포도농사였으므로 그들이 새벽에 나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새벽같이 일터를 찾아 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오전에는 김정자 전도사님께서 '4영리 전도법'을 강의해 주셨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움으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우리는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1박 2일의 짧은 전도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이같은 전도활동으로 얻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결실들이 있었다. 첫째는 교회를 개척 후 처음으로 대성회를 이루어 마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둘째로 저녁부흥회에는 12명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열매를 얻었으며, 셋째로 교회의 숙원인 본당 출입구를 수리하고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하여 교회에 힘이 되었으며, 마지막 넷째로는 우리가 다녀간 후 마을 사람들이 사일교회와 목사님을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좋은 결과들을 듣게 되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같은 농촌전도대의 활동이 계속되어 농촌교회에 큰 힘을 실어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취재수첩

루디아·에스터 5지회 학교 앞 노방 전도 실시

루디아, 에스터전도회 5지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부터 개포중학교 정문과 후문 앞에서 노방 전도를 실시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학교 폭력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게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나라와 민족을 위해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중등2부 작은 음악회 열어

지난 주일 중등2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찬양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피아노 독주, 여성중창, 고등부 예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조연주가 있는 후 중등2부 찬양대의 찬양으로 마쳐졌다.



해외단기선교사역 본격 시작

지난 7월 6일 파송식을 가진 해외단기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홍콩팀이 12일 오전 6시 출국하여 현재 홍콩 우두각교회(김은태 선교사 시무)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고, 오는 28일에는 인도네시아팀이, 8월 15일에는 터키팀이 사역을 위해 출국하게 된다.



새가족환영회 은혜 가운데 진행

지난 7월 13일(주일) 갈릴리홀에서 새가족환영회가 있었다. 첫순서로는 중현교회를 소개한 비디오가 상영되었고 청년1부 찬양팀이

97년도 전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 7월 20일 ~ 8월 31일
- 시간 : 10:00-14:00, 15:00-16:00
- 장소 : 선교관 404호 (감사위원회실)
- 대상 : 당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소속 기관
- 준비물 : ① 원장 ② 시산표 ③ 통장 ④ 증빙서류 ⑤ 금전출납부
- 문의 : 감사위원회실(교환 354)



총동원전도의 날 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대신자를 작성하였고 교사들은 토요일 휘문중학교에 나가 전도를 하였다. 또한 장기결석자들에게 면려회에서 편지를 발송하거나 교사들이 심방을 하였고 부모님만 우리 교회에

특별찬양을 하였다. 윤삼중 목사의 사회, 정하우 장로의 기도, 김성관 목사의 설교로 환영예배를 드렸다. 그후 새가족부 교사들이 새가족을 환영하는 의미로 새가족 환영송을 불렀고 이 곳에 참석한 새가족들 중에서 간증을 하는 시간과 교구장, 목회자, 교구일꾼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 후 윤삼중 목사의 기도로 환영회를 마쳤다.

이 날은 5월달부터 처음 나온 새신자 159명이 참석했다.

중등3부 총동원전도의 날

중등3부에서는 지난 7월 13일(주일)

다니는 가정에는 중등3부의 소식을 알리는 편지도 보냈다. 그래서 이날 20여명의 새친구들이 나왔다. 이들은 4주 동안 신입부에서 공부한 후 동반하게 된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교사 모집

- 기간 : 97년 8월 4일 ~ 8일
- 자격 : 대학부 및 청년부 회원
- 접수 : 교정전도회(본당 지하)

권사중창단

“찬양이라면 어디든 불러 주세요”

지난 95년 창단하여 찬양을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권사중창단이 지난 7월 11일 금요일집회때 특별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이 세상 어딜 가든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9명의 권사로 구성되어 있는 권사중창단은 한영숙 권사가 단장, 정경자 권사가 지도 및 반주를 맡고 있으며, 단원으로는 소프라노에 신일순, 현계식, 안정희 권사, 메조소프라노에 최봉숙, 백숙자 권사, 알토에 한영숙, 김춘지, 정정자 권사가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교육관 107호에 모여 2시간씩 연습을 한다.

권사중창단은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해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찬양으로 봉사한다. 특히 군전도회의 월례회나 진중세례식, 군복 모임때에는 늘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형무소 출감자들의 지원단체인 갈릴리봉사회의 월례회때도 빠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부터 호산나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찬양의 의미와 깊이를 깨달아온 이들이다. 자신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주변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부족하지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한다. 이들은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아버님의 천국 환송식에 다녀와서

김 경 속
(이중대 목사 사모)

7월 2일 수요일2부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집에 와 찬송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 “금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4-5)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이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낮부터 내 집에, 하나님 집에 가게 옷을 달라고 하신단다. 그래도 혈압이 정상이고 맥박도 조금 빠를 뿐 정상이란단다. 그러면 오늘을 아니 이번주는 넘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소망부 수련회가 내일부터라 원래 내 계획은 목요일 일찍 아버님을 뵈러 갈 생각이었다. 그 전화를 받고 잠이 오질 않는다. 성경을 읽어 나갔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1장까지

읽고 새벽기도를 위해 잠을 청했다. 7월 3일 새벽개인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를 드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다. 월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제일 먼저 걸렸다(소망부 수련회 준비로 가지 못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월요일에 뵈러갈 적마다 “예배드리자. 이 목사 찬송해” 하시던 아버님이셨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니 월요일은 꼭 예배를 드렸었다. 50이 가까운 연세에 하나님께 나오셔서 405장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다.

불신 가운데 계시는 때에 식구들을 핍박하시거나 괴롭게 하신 적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 어른들이 수요일예배에 가시고 나는 동생들과 집에 있다가 도둑을 맞은 적이 있다. 건너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독이 든 것이다. 그때 아이들 놀라지 않고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라고 어머니께 돈을 주셨던 아버님이시다.

10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천국에 가실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천정에서 아버님은 식사때마다 가족이 상에 둘러앉아 88장 찬송하고 기도 후 식사를 하게 하셨다. 그때가 그리워진다.

아버님을 간호하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간호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동안 아버님께 더 사랑이 갔다. 이 수족, 이 몸 얼마나 만져드리며 씻겨드릴 수 있을까? 나 어려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병문안 오시는 분들께서 자손들이 간호하기 얼마나 어려우냐고 물으셨으셨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어렵지 않았다. 기쁨이었다. 아버님께 효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아버님은 너희들에게 사랑의 빛만 지고 간다고 미안해 하셨다. 평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시는 깔끔한 성품이셨다. 오갈데 없이 무의도식 하는 사람을 30년간 데리고 사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복음 전하시며 하늘나라 가시는 날까지

그 사람 걱정을 하셨다. 그 일생 베푸시는 삶을 사신 분이시다.

말기암의 고통 가운데 힘이 부쳐 목소리가 안나와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테이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뵈을 준비를 하셨다. 너무 고통스러우실 때는 내가 어떻게 정그린 얼굴로 예수님 뵈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나 죽거든 너희들 절대 울지 말아라 나는 천국에 갔으니 기뻐 찬송해라” 말씀하시고 의식을 잃으시기 전 주기도문을 크게 외우시고 “아멘, 할렐루야” 까지 하시고 72년의 삶을 마감하셨다.

하관예배를 하고 부도를 하면서, ‘아버님 주님 품에 편히 쉬세요.’ 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하나님나라 그 궁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신 아버님이 한없이 부러웠다.

아버님 장례기간 중 위로와 사랑을 베푸신 당회장 목사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뵈고 인사드리야 도리인데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함을 용서 바라며 사랑의 빛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